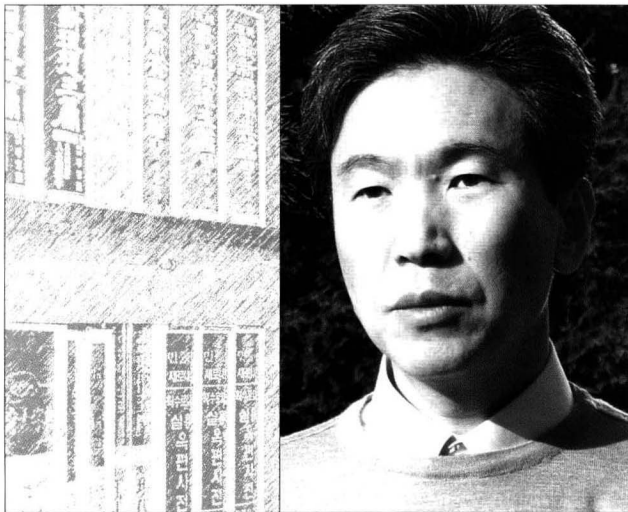


1

오류 제로에 도전하지만 어쩔 수 없이 다시 시작해야 하는 작업

안상순\_금성출판사사전팀장



일찍이 오늘날처럼 사전이 우리 생활과 가까워진 적은 없었다. 전자수첩, CD-ROM, PDA, 인터넷, 심지어 휴대 전화에까지 사전이 실림으로써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사전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이렇듯 다양하게 변용된 전자사전들도 사실은 대부분 종이사전을 모태로 하고 있다. 종이사전을 만들면서 구축된 데이터를 가공 처리한 것이 바로 전자사전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전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많은 종류의 사전이 있지만 여기서는 국어사전이나 영어사전 같은 어휘사전을 예로 들어서 편찬 과정을 살펴보기로 하자. 그 과정은 크게 기획 단계, 표제어 선정 단계, 집필 단계, 교열·교정 단계 등으로 구별된다.

• 기획 단계

기획이란 한 마디로 사전의 설계도를 만드는 일이다. 판형 쪽수 레이아웃과 같은 외형은 물론, 주 대상층은 누구로 할 것이며 사전의 내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이 이 단계에서 논의되고 결정된다. 또 얼마 동안 작업하여 어느 시점에 시장에 내놓을지도 검토되는데, 그에 따라 적절한 인력이 편성된다.

그런데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편찬 지침을 만드는 일이다. 이는 사전의 골격을 세우는, 기초적이면서도 중핵적인 일이다. 표제어 선정의 기준과 규모를 정한다든지 뜻풀이 원칙과 형식을 세운다든지, 그 밖에 원어 발음 표사 예문 등의 정보를 어떻게 제시할 것인지에 대해 세세한 매뉴얼이 마련된다. 또 사전에는 각종 약물과 특수 부호가 많이 사용되는데 그에 대한 규약도 이 단계에서 정해진다.

지침은 치밀하면 치밀할수록 좋다. 이것이 엉성하면 사전의 체계성과 밀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규모가 큰 사전일수록 지침의 양도 많아진다. 국립국어연구원이 《표준국어대사전》(1999년)을 편찬하면서 만든 지침이 책으로 수백 쪽수에 이르렀던 것도 그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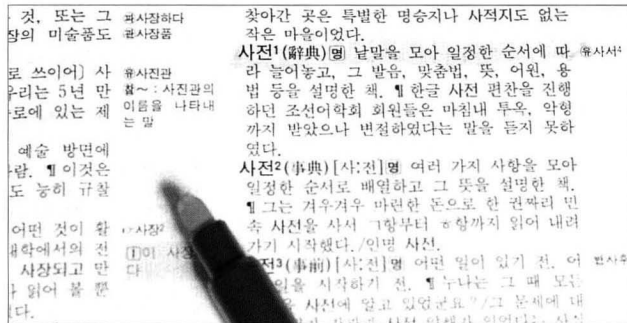
•• 표제어 선정 단계

사전은 표제어와 풀이의 두 기둥으로 이뤄지는데 표제어 부분은 거시 구조, 풀이 부분은 미시 구조에 해당한다. 따라서 표제어 선정 작업은 사전의 거시 구조를 세우는 일이라 할 수 있다. 명확한 기준은 아니지만 국어사전의 경우 대체로 표제어가 10만 이하이면 소사전, 10만에서 20만 정도면 중사전, 그 이상이면 대사전으로 분류한다.

표제어 선정의 일차적 자료는 기존 사전이다. 편찬자는 기존 사전들이 채택하고 있는 단어들을 일정한 기준-목적 사전의 어휘 규모, 단어의 사용 빈도, 단어로서의 자격 여부 등의 기준-에 따라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수용한다. 그 밖의 표제어 선정 자료는 문예 작품·신문·잡지·인터넷 등이다. 여기서 새로이 채집되는 단어가 이른바 신어新語이다.

최근 들어 사전들의 신어 채집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사전의 진화



신어 수용의 속도도 갈수록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날 신어가 실리기 위해 10년을 기다려야 했다면, 이제는 신어가 생긴 지 1~2년이면 사전에서 만날 수 있게 되었다.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옥스퍼드 사전이 인터넷 통신에 쓰이는 축약어, 가령 RUOK(Are you OK?)까지 실는 것도 그런 추세에 반영이라 할 수 있다. 필자가 참여한 《훈민정음 국어사전》(2004년)이 '얼짱/블로그/디저라티/꽃미남/사스/방카쉬랑스...' 등의 최신어를 실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 ... 집필 단계

표제어가 선정되고 나면 원고 집필 단계에 접어든다. 원고작업은 그 영역이 표제항 부분, 발음 부분, 뜻풀이·용례 부분 등으로 나뉘는데 사전의 규모와 인력 상황에 따라 각각 분업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표제항에서는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에 따라 단어의 규범적 표기 형태를 확정하며, 그 단어가 한자어이거나 외래어일 경우 원어를 한자 또는 로마자 등으로 제시해 준다. 발음에서는 단어가 표기 형태와 다르게 소리나는 경우 일일이 그 음을 표시해 주며, 어떤 음절이 길게 소리나는 경우 장음 부호(:)로 표시해 준다. 뜻풀이에서는 단어의 의미 자질을 쉽고 정확한 말로 정의해 준다. 이 일은 사전편찬의 가장 중추적인 것으로, 집필자의 오랜 경험과 숙련을 요한다. 자칫하면 유의어끼리의 순환 정의에 빠지거나 막연하고 부정확한 풀이에 머무르기 쉽기 때문이다. 용례는 뜻풀이의 연장으로서 단어의 의미를 직관적으로 파악하게 해주는 장치이다. 풀이가 단어에 대한 이해력을 높여 주는 기능이 있다면, 용례는 표현력을 신장시켜 주는 기능을 갖는다.

### ... 교열·교정 단계

사전편찬의 마지막 단계는 교열과 교정이다. 원고집필이 끝나면 조판을 하기 전에 다시 한 번 원고를 살피면서 퇴고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교열이다. 교열은 사전편찬 경험이 많고 지침을 환히 꿰뚫고 있는 베테랑이 맡게 된다. 여기서 내용상의 오류와 체제상의 불균형이 바로잡아지면 조판의 단계로 넘어가 교정쇄가 나오게 된다. 사전의 교정은 어느 출판물보다 오자나 오류가 치명적이기 때문에 일반 단행본보다 교정 횟수가 많다. 교정자는 고도의 집중력과 치밀함을 가지고 오류를 제로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하지만 순도 100퍼센트 완전무결은 이상일지 모른다. 책을 내놓고 나면 내용의 오류나 취약점이 여기저기서 발견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사전은 완성되는 순간, 다시금 깊고 더하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그것은 마치 산 정상에 도달하자마자 굴러 떨어지는 바위를 끝없이 밀어 올려야 하는 시지푸스의 운명과도 같다. **한글**